

경주 방폐장 건설사업 착실히 추진

- 금년 상반기내 처분방식 선정 -

- 한수원 본사는 금년 8월말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 -

□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경주시 봉길리에 건설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

○ 작년 11월2일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으로 선정됨

○ 금년 1월2일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주시 봉길리 일대 64만평을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·고시

○ 현재, 부지특성조사, 환경영향평가, 방사선환경영향평가, 안전성분석 등 각종 조사와 설계를 수행중

○ 내년 하반기에는 기반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말에 1단계 10만드럼 처분장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* 울진원전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비하여 2008년말 부분운영 추진

□ 처분방식(동굴 또는 천층)은 「처분방식선정위원회」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금년 상반기내 결정 예정

- 처분방식 선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「처분방식선정위원회」를 구성('06.4.4)

* 처분방식선정위원회(총 16인)

- 구성: 경주시 및 의회(3인), 경주시 추천 NGO(3인), 민간 전문가(10인)
- 위원장 및 기술분과위원장 : 황주호 경희대 교수
- 사회환경분과위원장 : 최용환 경주핵대책시민연대 대표(경주 문화원장)

- 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기관(한전기술, 핀란드 S&R사, 스페인 Initec사)의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, 친환경성,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내 처분방식을 결정할 예정

- 산업자원부는 경주시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

- 특별지원금(3,000억원)은 경주시가 특별지원금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현재 지급방식에 대하여 경주시와 협의를 진행중이며,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급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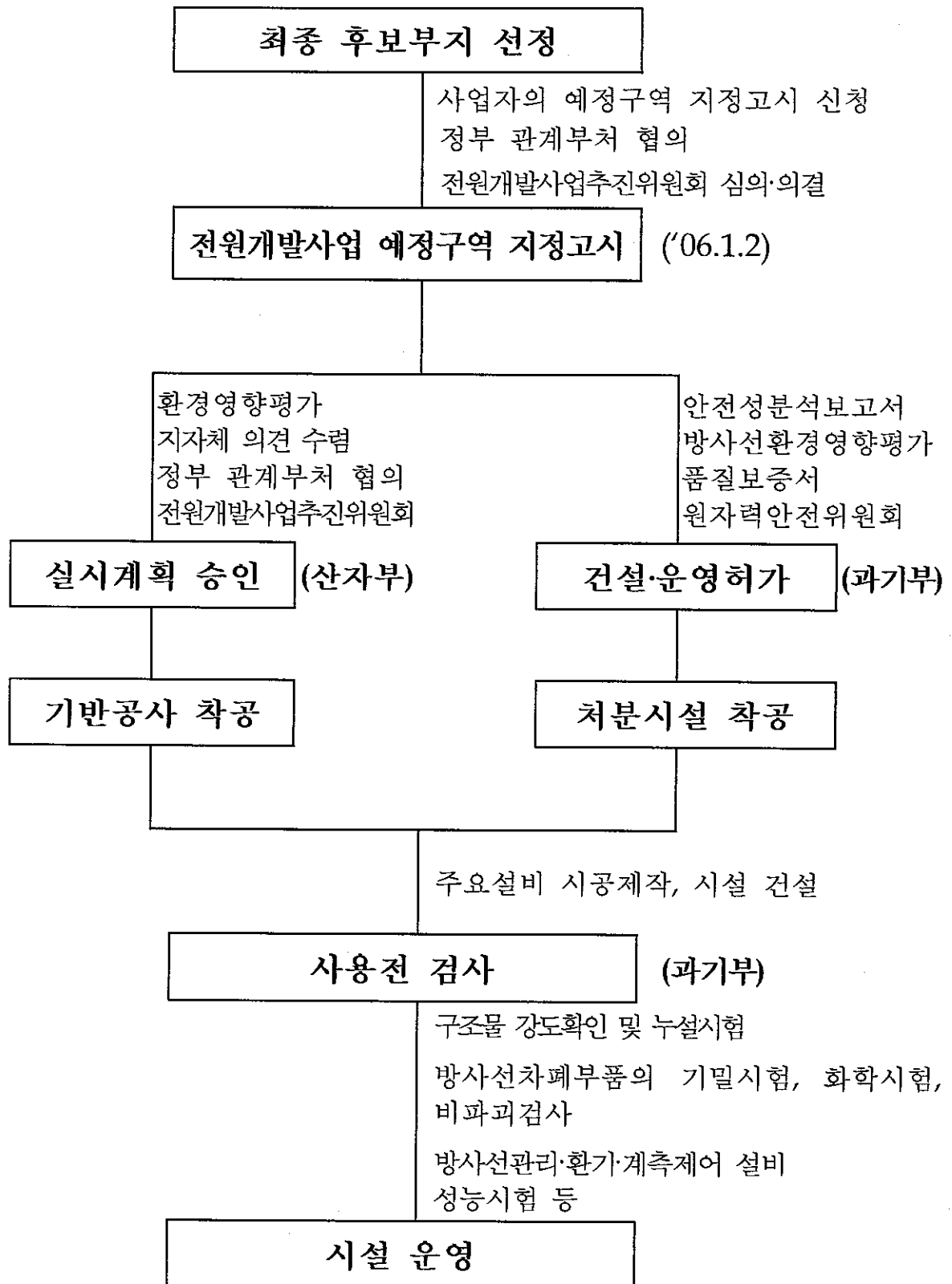
- 한수원 본사이전은 한수원에서 금년 8월말까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, 내년 하반기 사옥 건설에 착공하여 2010년 하반기 이전에 조기 이전 추진

* 경주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행정적 지원만 수행하면 충분

-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소간 사업협약을 체결('06.3.30) 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

첨부 1

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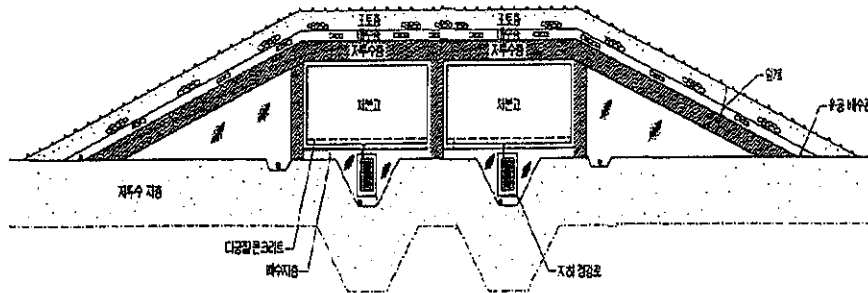


첨부 2

처분방식 개요 및 주요국가 처분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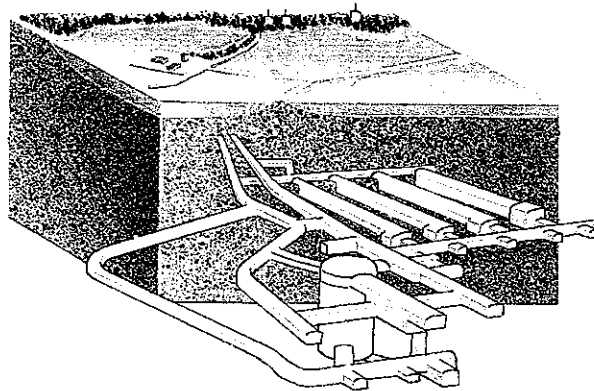
① 천층처분방식 (사례 : 프랑스 로브처분장)

- 저투수성 지층 상부에 콘크리트 저장고를 건설하여 폐기물을 저장하고, 빈 공간은 시멘트, 벤토나이트 등으로 충전한 후 콘크리트 저장고 상부에 방수 덮개층을 설치하는 방식



② 동굴처분방식 (사례 : 스웨덴 포스마크 처분장)

- 지하암반층에 동굴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저장하고, 빈 공간은 시멘트, 벤토나이트 등으로 충전하는 방식



□ 주요국가 처분방식 개요

국 가	처분방식	처분장	처분용량	특 정
핀란드	동굴처분	울킬로우토	43,500 드럼	심도: (-)80m에 위치
스웨덴	동굴처분	포스마크	315,000 드럼	심도: (-)60m 해저에 위치 수평형 및 수직형 처분동굴
스페인	천층처분	엘카브릴	250,000 드럼	내륙 산악 지역
프랑스	천층처분	로브	5,000,000 드럼	내륙 평원 지역
일 본	천층처분	로카쇼	400,000 드럼	해안 인접 지역

